

2019년 8월 22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기업실적 개선 효과에 힘입어 상승 타겟 +20.43%, 로이어스 +1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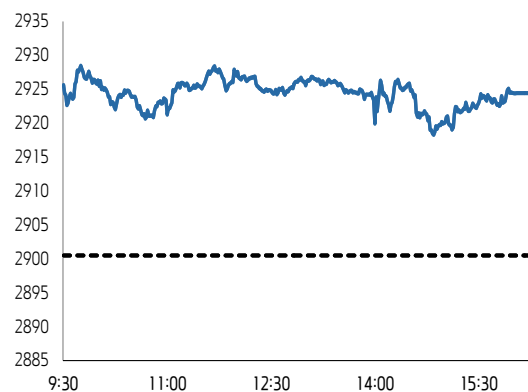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①기업들의 실적 ②FOMC 의사록 공개

미 증시는 양호한 기업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출발. 특히 이를 통해 최근 불거졌던 경제 침체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이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었음. 한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직후 잠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보인 점도 특징(다우 +0.93%, 나스닥 +0.90%, S&P500 +0.82%, 러셀 2000 +0.79%)

미 증시는 ①기업 실적 개선 ②FOMC 의사록 공개로 변화. 소매유통업체 타겟(+20.43%)과 로이어스(+10.35%)가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자 미 증시는 상승 출발. 특히 경기침체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소매유통업체 타겟은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와 동일점포매출 증가율을 기록. 특히 미용과 의류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으며, 전자제품 부품은 일부 감소했으나, 하반기에 개선 될 것으로 전망. 여기에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관세 영향은 제한적이며, 아마존과의 경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전망치도 상향 조정. 시장에서는 타겟의 실적 발표로 양호한 7 월 소매판매(mom +0.7%)와 더불어 미국의 소비의 견고함을 보였다고 평가. 이날 BOA CEO 가 미국의 소비는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는 높지 않다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

한편, 시장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mid-cycle adjustment'(중간 사이클 조정) 문구 영향으로 잠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음. 그러나 두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주장한 가운데 두명의 위원이 50bp 인하를 주장했다는 점이 새로이 부각되며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음. 한편, 연준은 미국 경기 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기는 했으나,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는 표명. 특히 일부 위원이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 이들은 무역분쟁으로 미국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인플레이션 목표인 2% 도달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음을 언급.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상의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미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 FOMC 의사록 공개 후 CME 는 FEDWatch 를 통해 9 월 금리 동결 확률이 1.9% 나타났다고 발표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수	등락률(%)	Close	D-1
KOSPI		1,964.65	+0.22	홍콩항셱		26,270.04	+0.15
KOSDAQ		615.96	+1.47	영국		7,203.97	+1.11
DOW		26,202.73	+0.93	독일		11,802.85	+1.30
NASDAQ		8,020.21	+0.90	프랑스		5,435.48	+1.70
S&P 500		2,924.43	+0.82	스페인		8,701.50	+0.97
상하이종합		2,880.33	+0.01	그리스		832.72	+0.36
일본		20,618.57	-0.28	이탈리아		20,847.07	+1.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업종 급등

타겟(+20.43%)는 양호한 실적과 전망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급등 했다. 특히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점도 긍정적이었다. L브랜트(+2.06%)도 상승 했다. 노드스트롬(+5.53%)은 장 중에 급등한 가운데 시간외로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데 힘입어 12% 급등하고 있으며 여타 소매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홈 개선 제품 판매 회사인 로이어스(+10.35%)도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했다. 홈디포(+1.52%)도 동반 상승해 52주 최고치를 경신했다.

럭셔리 주택 건설업체인 톨브라더스(-4.47%)는 부진한 실적 발표 여파로 하락 했다. 아나로그 디바이스(-1.54%)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관련 불확실성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 했다. 그러나 브로드컴(+2.54%)과 퀄컴(+0.83%)가 이미 관련 이슈로 전망을 하향 조정 했었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 되었다. 한편, 크리(-15.85%)는 예상을 하회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하며 급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45%	대형 가치주 ETF(IVE)	+0.77%
에너지섹터 ETF(OIH)	0.00%	중형 가치주 ETF(IWS)	+0.67%
소매업체 ETF(XRT)	+1.88%	소형 가치주 ETF(IWN)	+0.77%
금융섹터 ETF(XLF)	+0.45%	대형 성장주 ETF(VUG)	+1.01%
기술섹터 ETF(XLK)	+1.18%	중형 성장주 ETF(IWP)	+1.0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9%	소형 성장주 ETF(IWO)	+0.89%
인터넷업체 ETF(FDN)	+1.14%	배당주 ETF(DVY)	+0.96%
리츠업체 ETF(XLRE)	+0.4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17%
주택건설업체 ETF(XHB)	+1.4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9%
바이오섹터 ETF(IBB)	+0.91%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74%	하이일드 ETF(JNK)	+0.44%
곡물 ETF(DBA)	+0.20%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1.02%	Long/short ETF(BTAL)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27.08	+0.75%	+2.60%	-8.98%
소재	354.60	+0.53%	+1.82%	-4.89%
산업재	630.30	+0.67%	+2.65%	-5.03%
경기소비재	942.92	+1.83%	+4.06%	-3.97%
필수소비재	618.97	+0.34%	+2.71%	+0.83%
헬스케어	1,054.96	+0.75%	+2.43%	-1.06%
금융	440.32	+0.46%	+2.21%	-7.15%
IT	1,400.95	+1.18%	+3.94%	-3.57%
커뮤니케이션	165.64	+0.39%	+2.46%	-1.25%
유틸리티	313.61	+0.67%	+2.83%	+3.16%
부동산	240.24	+0.50%	+2.57%	+4.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움직임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5% MSCI 신흥 지수 ETF 는 0.96%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1,004 계약을 순매수 한 가운데 0.70pt 상승한 259.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01.77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 상승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주요 요인으로 상승 했다. 특히 지난 15 일 7 월 미국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미국 소매 유통업체들의 실적 개선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이다. 여기에 연준의 일부 위원이 50bp 의 금리인하를 주장했다는 점,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는 있지만,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무역 긴장을 다소 완화 시켰다고 평가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날 트럼프는 어제에 이어 중국과 무역협상은 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일부 위원들이 9 월 FOMC 에서 금리동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연준이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점이 부각된 점은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23 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이 더욱 주목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은 지난 7 월 31 일 기자회견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가 어제와 달리 감세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꾼 점은 부담이다. 더 나아가 미 증시 마감을 앞두고 잠깐이지만 장단기금리차가 재차 역전되기도 한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 증시 마감 후 노드스트롬이 실적 발표 후 12% 급등하는 등 소매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심리는 나쁘지 않아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 제한적인 등락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개선

7 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는 전월(529 만건)이나 예상치(538 만 5 천건)을 상회한 542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중간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4.3% 상승한 28 만 800 달러로 발표되었다. 재고는 전월(4.4 개월) 보다 감소한 4.2 개월로 발표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국채금리 소폭 상승

국제유가는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에서 원유 재고는 273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했으나 하락 했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가솔린이 31 만 배럴 증가했고, 정제유도 예상보다 큰 261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된 점이 부담이었다. 이는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가운데 수요 부진 우려를 높였기 때문이다. 한편,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으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시사 했으나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달러화는 연준이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점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잭슨홀 컨퍼런스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변화는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혼재된 모습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독일 국채입찰 부진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독일은 쿠폰 제로금리로 30 년물 입찰을 시행 했으나, 평균 입찰 국채수익률은 -0.11%로 사상 최저 수준이었지만, 판매는 20 억 유로 판매 계획에 크게 미치지 않은 8 억 2 천 400 만 유로에 그쳤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 했다. 더불어 연준이 FOMC 의사록에서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주저하고 있음을 보인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CME 는 FEDWatch 를 통해 9 월 금리 동결 확률을 2%로 발표했다.

금은 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8% 하락했으나 철근은 0.76%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5.68	-0.80	+0.78	Dollar Index	98.283	+0.09	+0.30
브렌트유	60.30	+0.45	+1.38	EUR/USD	1.1085	-0.14	-0.48
금	1,515.70	0.00	-0.79	USD/JPY	106.62	+0.37	+0.67
은	17.290	+0.02	-0.76	GBP/USD	1.2130	-0.33	+0.58
알루미늄	1,779.00	-0.17	+0.23	USD/CHF	0.9819	+0.40	+0.89
전기동	5,732.00	+0.37	-0.57	AUD/USD	0.6781	+0.04	+0.49
아연	2,289.00	+2.83	+1.46	USD/CAD	1.3291	-0.21	-0.21
옥수수	370.25	+0.41	0.00	USD/BRL	4.0281	-0.68	-0.58
밀	468.00	+0.32	-2.14	USD/CNH	7.0672	-0.05	+0.20
대두	873.00	+0.55	-0.57	USD/KRW	1202.50	-0.48	-1.61
커피	96.65	+1.47	-1.28	USD/KRW NDF 1M	1201.77	-0.39	-1.17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1.589	+3.38	+1.01	스페인	0.093	0.00	-4.60
한국	1.280	+8.00	+6.00	포르투갈	0.126	+0.70	-4.20
일본	-0.236	-0.30	-1.70	그리스	1.978	-0.40	-5.10
독일	-0.670	+2.00	-2.00	이탈리아	1.329	-4.10	-17.60